

# 尊德亭

김 두 헌 / 문화재연구소



• 존덕정

## 1. 昌德宮 後苑의 築造

太宗 5년(1405년) 10월에 漢陽의 환도와 더불어 昌德宮에 入御하여 이듬해 봄부터 충청·강원도에서 民丁 1천명을 소집하여 창덕궁 工役에 나오게 하였고 4월에는 廣延樓와 解慍亭을 짓기 시작한다.

太宗 6년 4월에 해운정이 완공되었다. 해운정의 위치는 정확히 알 수가 없으나 지금의 藏書閣 東北측 구릉 지대로 생각된다. 이 해운정이 건립되면서 후원을 축조하게 되는 동기가 마련되며 해운정은 태종 14년(1414년)에 慎獨亭으로 개명하였다.

세종까지는 후원에 신독정과 前池가 있을 정도였으나 후일의 후원과 같이 넓은 일곽을 이룬 것은 세조 때에 이르러서였다. 세조 5년(1459년) 9월 실록에는 「후원에 御하여 좌우로 분하여서 鑿池를 하였다. 役夫에게 酒肉을 賜하였다…」고 한바와 같이 못을 판 일이 있으며 9년(1463년) 11월 「閱武亭에 御하여 王世子, 臨瀛大君 瑒, 柱陽君 璿, 翼峴君 璉, 鳥山君 澍, 鈴川府完君 尹師路, 領議政 鄭昌孫…」이라는 기록에서 탈무정의 이름이 보인다. 탈무정의 위치는 지금의 부용정 주위에 있는 四井紀碑가 있는 부근으로 생각된다. 연산군 때는 후원에서 女姬와 더불어 遊宴하였으며 또 禽獸를 放養하여 馳獵하는 등 狂荒한 생활을 하였다고 한다. 유락을 外人이 엿보는 것을 막기 위하

여 3년(1497년) 초에는 후원의 西牆을 높이 개축하고 9년(1503년)에는 東·西牆의 牆底 민가들을 철거하였고 10년에는 성균관이 후원에 접근되었다 하여 他處로 移置하였다. 11년 5월에는 경회루와 같이 후원에 新臺를 만들라는 하명이 있자 「후원에 돌을 쌓고 臺를 만들고 石欄에는 용을 조각하고 臺의 높이는 10여척으로 千人이 앉을 수 있었다」 하였으며 이름을 珮葱臺라 하였다.

궁궐지에는 珮葱臺의 위치를 綠陰臺 남측에 있다고 하였으며 綠陰臺는 영화당 동남측이라 하였다. 임진왜란 때 창덕궁의 모든 건물은 소실되었고 그후 20여년 간을 폐허로 있었다. 광해군 초에 후원의 造營을 명하여 「役事는 모두 先建되었다. 또한 別殿을 數處에 만들었다. 奇花異木怪石을 도라하고 園囿花石 사이에 待待小亭을 만들어 遊覽에 비하였다.

奇巧하고 奢侈함이 예전에는 일찌기 없었다」고 광해군 일기 2년 2월 己未條에 이야기 하고 있다. 인조 14년(1636년)에 歎逝亭·雲影亭·清漪亭 등을 건립하고 후에 歎逝亭은 逍遙亭으로 雲影亭은 太極亭으로 개명하였다.

인조 18년(1640년)에 聚奎亭이 건립되고 23년(1645년)에 醉香亭을, 24년에 八角亭, 25년에 聚勝亭이 건립되었다. 후에 聚香亭은 喜雨亭으로 개명하였다. 숙종 14년에 淸心亭을 17년에 凌虛亭을 新建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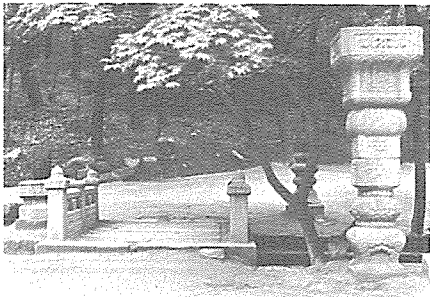
또한 大報壇을 조영하고 영조 52년(1776년)에 규장각을 건립하였다. 후원은 왕이 생활의 여가를 자연과 더불어 휴식하고 즐기는 곳으로 궁궐의 外殿이나 內殿과는 기본 意匠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이곳은 山麓이나 池中 또는 백여종의 수목이 우거진 자연 풍경을 좇아 자유자재로 평면이 사각에서부터 팔각에 이르기까지 형형색색을 구비하고 屋蓋의 형태도 瓦葺·草家 등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다양성을 지니고 있다. 건물의 규범이나 법식도 준수하여 미비점이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창덕궁 비원은 後苑(園)·北苑(園) 禁苑으로 부르기도 한다.

北苑은 定宗實錄 元年 2월 丙辰條에, 北園은 같은 달 2丑條에, 禁苑은 英祖 52년 9월 癸己條에 각각 나타나고 있다. 비원이란 용어가 사용되기는 純宗實錄에 처음 나오며 韓日 合併 이후에 쓰인 것으로 日人들이 후원의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에 도취되어 붙인 이름으로 생각된다.

## 2. 尊德亭의 位置와 建立

창덕궁 정문인 돈화문에서 북측으로 30여미터 가면 동측으로 꺾이는 곳에 錦川橋란 石橋가 있다. 錦川橋를 건너 仁政門과 궁궐 出口를 지나며 內醫院 앞에 이른다. 의원 담장을 따라 좌측으로 돌며 후원으로 들어가는 秘苑門이 있다. 이 문을 지나 嘉靖堂 담장을 따라 언덕을 넘어 북



• 석물과 석교



• 석주 및 장대석

측으로 내려가면 蓮池와 宙合樓, 暎花堂, 부용정 등의 건물이 사방에 자리잡고 있으며 여기는 후원의 중심지로서 아름다운 환경이 조화를 이룬 곳이기도 하다.

蓮池沿岸에는 多角形 지붕으로 된 부용정이 있으며 북측으로 40여 미터 거리에 金馬門이 있다. 문 좌측에는 石造로 不老門이 있고 여기서 40여 미터 북측에는 半島池가 길게 뻗어있다. 반도지 연안에 평면이 부채꼴 모양으로 된 觀纜亭이 있으며 그 맞은편 언덕에는 사각지붕의 勝在亭이 있다. 승재정 서측에는 맛배지붕의 砥愚榭가 잔디밭 가운데 자리잡고 있으며 반도지 연안에 6각정인 尊德亭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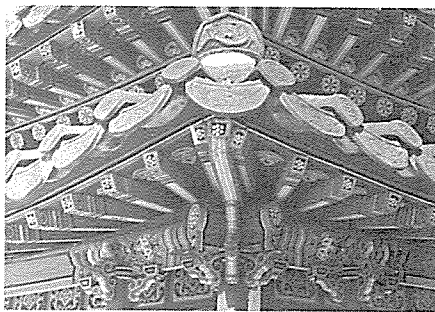
존덕정은 仁祖 22년(1644년)에 건립하고 처음에는 6각정이라 하였으나 후에 지금의 亭名으로 개칭하였다 한다. 궁궐지에는 존덕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표기하고 있다.

「尊德亭在深秋亭西北 有池曰半月 仁祖二二年甲申建初稻六面亭後改是名橋南置日影臺以測晷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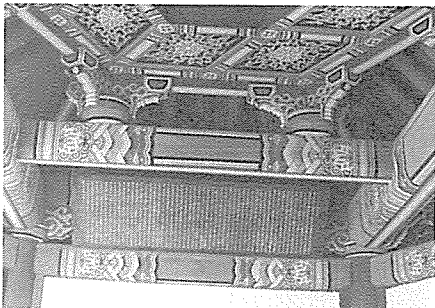
● 尊德亭 平面

존덕정은 2개의 팔각 석주를 水中에 설치하고 장대석을 각 석주 위에 1개씩 난란히 얹어 동쪽 석축 위에 걸쳐 놓았다. 존덕정은 正六角形의 평면으로 바깥 쪽에는 퇴칸을 두고 있다.

퇴칸 기둥의 좌우에는 보조 기둥을 세우고 있다. 기둥 사이에는 난



• 퇴칸의 기둥 및 포부채



• 뜬보와 접시받침

간을 설치하였다. 난간의 궁창판에는 眼象을 새기고 가늘은 童子 받침을 엄지기둥 위에 설치하여 두겹대를 받고 있다.

퇴칸의 난간은 근자 살을 짜 맞추고 그 위에 띠장을 엮고 각 엄지기둥 위에는 하엽을 설치하여 둥근 두겹대를 받게 하였다.

마루는 우물마루로 짜고 퇴칸은 장널 마루를 깔았다.

● 尊德亭 架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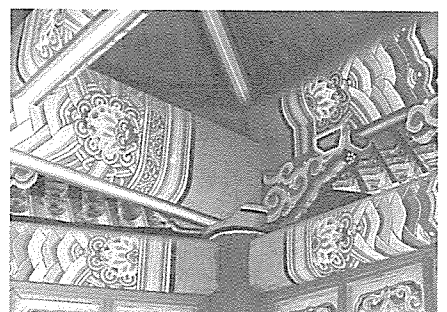
존덕정의 기둥 상부에는 昌枋을 엮고 창방 아래에는 빗살문과 꽃무늬의 交窓을 설치하였다.

빗살무늬 아래는 門植柱와 인방이 짜여지고 꽃무늬 아래는 낙양을 달았다.

柱上에는 원형 평굽으로 된 柱頭가 놓이고 柱間에는 花盤을 놓아 柱心道里와 장여를 받게 하였다. 大樑은 평행으로 2개를 설치하고 그와 직교하는 뜬보를 걸어 正六角形으로 걸리는 中道里를 동자주가 받게 하고 있다.

나머지 좌우의 두 기둥 위에는 衝樑을 걸어 大樑에 맞추었다. 대량과 뜬보에 놓은 평면의 접시받침이 놓이고 장여와 중도리를 받고 있는 특이한 구성이다.

장여 위에는 우물천정으로 꾸미고 가운데 正六角形의 澡井에는 청룡과 백호가 서로 여의주를 물려는 형상을 하고 있다. 연목은 모두 長椽을 사용하고 각 추녀에서 짜여진 扁子椽은



• 주두 및 보



• 창방과 하부꽃창

부채살 모양으로 퍼지고 각 주간의 도리 위에는 3개의 서까래를 써서 공간을 처리하였다.

4. 尊德亭 주위의 空門

「亭子」하면 누구나 나름대로의 관점이 있겠지만 후원에서 공간을 구성하는 정자의 비중은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으며 후원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산책을 하다 쉬어가는 곳이기도 하며 거실을 옥외로 옮겨 놓은 듯한 아늑한 정경의 쉼점이 되기도 한다.

존덕정에서 보이는 주위 공간은 못, 정자, 다리, 언덕, 잔디, 괴석 등이 앞과 뒤로 분산되어 있으나 하나로 융화된 감이 있다. 반도지와 扁子 모양의 정자, 그리고 뒷편의 길과 숲은 그들의 배경으로서 더할나위 없는 아름다움을 자아내며 반도지 아래에 있는 石橋는 다리로 보이기 보다는 편평한 돌길로 착각할 정도이다.

돌다리, 아아취, 정자와 꼬불꼬불한 길은 자연에 녹아든 風情을 이루고 있다. 다리 남측의 높은 석물은 남쪽 언덕과 정자(勝在亭)의 공간을 차단하여 다른 한곳의 공간을 볼 수 있게 하고 있다.

존덕정 뒷편의 못과 계곡, 숲 그리고 숲 사이의 오솔길은 모두가 자연의 운치를 이루어 忽然自我를 잊고 恍惚境에 잤다.